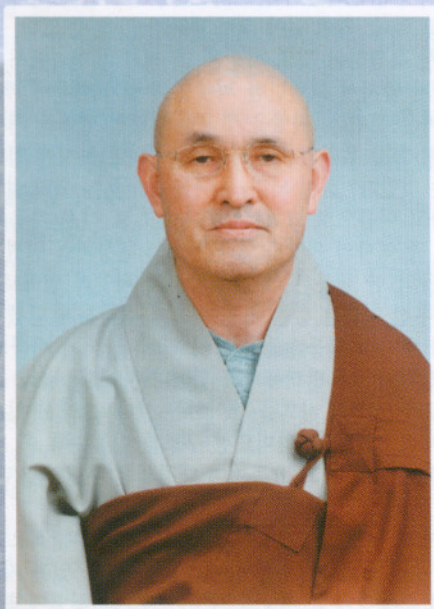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박일청, 최영미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empal.com

백신에게 듣는다(일곱번째, 여덟번째)



정락(正樂)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한국불교와 효(孝)”

■ 일시 : 불기2547(2003)년 9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정락스님 약력

- ▶ 김제시 흥복사에서 수계
- ▶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회원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 만의사 주지
-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원장
- ▶ 현) 용주사 주지

현장(玄藏)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티벳불교와 한국불교”

■ 일시 : 불기2547(2003)년 10월 18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현장스님 약력

- ▶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九山)스님을 은사로 득도
- ▶ 해인강원 졸업 ▶ 월간 <해인>지와 <불일회보>편집장 역임
- ▶ 1987년 티벳불교를 순례하고 돌아와 태안사 선원에서 정진
- ▶ 현) 전남 보성 대원사에 수련도량을 열고 대중들과 함께 정진



9,10월호

불기2547년(서기2003년) 9,10월 (통권제4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역사적 因果律과 《鄭鑑錄》

보현진열(gamrohan@hanmail.net)

우리 사회에는 요즘 격심하게 집단간 계층간 이익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 관철을 집단적 힘을 써서 해결하려는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엄연히 우리 사회에 실정법이 있는 데에도 그 위에는 정서법이 있고, 또 그 위엔 떼법이란 게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우리 사회의 법 질서의 큰 틀이며 운용의 밑그림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겠다.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는 '해 달라'는 함성은 사회적으로 힘있고 있는 자들의 연대 투쟁에서 불길을 당겨지더니만, 이제는 웬만히 힘쓰는 자들은 다 동아리 삼아 모여서 깃발을 앞세우고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돌진하고 있는 현상이다. '우는 애가 젖을 뺀다'는 속담도 있다지만, 모여서 한마디 구호를 외치지 못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시위하지 못하는 열간이가 아닌가 싶어 서글퍼지는 심정을 갖게 만드는 시절이다. 그 열간이(?)들은 분명히 지금도 사회적으로 힘있고 배경있는 약자들이 분명하다. 그들은 앞으로도 대중 앞에 나서서 머리띠를 두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된 길고도 복잡한 뒤 역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역사의 인과율이라고 할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앞 사람의 모범 그대로 뒤 사람의 삶의 양식이 된다. 부모의 언동을 자녀가 그대로 빼닮듯이 사회의 어른이나 지도층이 하는 행동 그대로 사회 전체에 전이되고 전파되어 모두 닮아하기 마련이다. 속담에 '애들 앞에서 찬 물도 못마신다'는 말이 있다. 어른이 마시면 애도 그제 별것인 양 마시겠다고 달라고 한다는 인간의 일반적 심정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삶의 좌표표 나침판이다. 그 나침판을 보면서 자기 행동을 가꾸어 가는 게 뒤 사람들이다. 참다운 어른이 있으면 그 가정이나 사회는 건전하게 성장하며, 그렇지 못하면 가정이나 사회는 병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응, 위 아래도 없네!' 하는 자조섞인 사회적 우울증이 번지고 만다.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언제부터인가 말하곤 한다. 모범될 어른이 없으니 그 가정 그 사회는 곧 병들고 만다. 병든 사회일수록 도덕이나 양심이나 종교는 아무런 힘을 못쓰고 오로지 힘과 법만으로만이 만능이 된다. 그 힘과 법이란 것도 전적으로 힘있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된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억울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법도 있는 자의 편이니, 억울해도 어디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이 울분을 되씹으며 살아야 한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조그만한 힘이 모이더라도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회적 갈등만이 증폭된다. 과거 절대군주제 사회에서도 민란이니 농민봉기니 하는 것들이 알고보면 그러한 공평한 법 질서가 무너져서 있는 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결사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것이 긴 역사의 순환일지도 모른다.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환경이 무너지니, 자연히 사회적 불신이 팽팽해지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믿을 수 없으니 믿을만한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동분서주 비용만 커진다. 서로 믿지 못하니 서로간에 라이벌이요 기교를 써서라도 상대를 제쳐 놓아야 할 적으로 본다. 우리의 현실적 비극과 불행은 다 여기서 오고 있다. 빈부차가 커지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는 강화되고 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사이로 변질되고 있다. 이제 내가 던진 돌맹이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인과율이다. 어느 현상이나 결과도 다 그럴만한 원인을 안고 있다. 원인 없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 '화풀이 시위'라고 해서 특필하는 것도 사실은 다 역사적 인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앞서서 그럴만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로서 다가온 것이다. 씨앗을 뿌리면 그만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우리의 행동이 씨앗이 되며 동시에 열매가 됨을 왜 모른다는 것인가? 봄이 되면 곧 여름이 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하다. 여름이라고 여름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즉 역사의 씨앗과 열매란 고리 현상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있는 자들의 한 행동은 그대로 역사의 씨앗과 열매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우선 피해는 없는 자들이 크게 심각하게 받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역동逆動 현상이 일어나, 마치 바다가 배를 뒤엎듯이 역성혁명이나 반역봉기가 일어나곤 해서, 결국 그 사회는 망하고 새로운 질서의 사회를 맞이하곤 한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더 핏발을 세워 가파른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수록 곧 없어질 배 모양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요동치며 대결의 칼부림만 요란! 하게 들리게 된다.

이런 역사적 역동성을 신앙적으로 믿고 역술易術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감록》이다. 한마디로 있는 자들의 지나친 지배욕 소유욕이 뿌린 재앙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역사적 인과율을 설명한 것이다. 어떻게든 재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지난 왕조나 쓰러진 기업체만이 겪는 역사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어느 생물체도 다 보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생노병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과응보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열매로서 쓰디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짓고 함께 받는다는 공동의 업共業이라 하겠다. 사회의 근본 이프라인 도덕적 믿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계략만이 설칠 때, 그 막중한 비용 부담을 우리 스스로 끌어 안은 채 증폭된 갈등 속에서 서로 몸만 다치고 말 것이다.

솔직히 요즘 같으면, 《정감록》의 소원처럼 '확! 없어졌으면~', 하는 나도 모르게 반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짜증나는 정치 행태며, 답답한 행정, 막무가네의 충돌.... 등을 보면서 '애라! 함께 죽자!~' 하는 몸쓸병에 나도 전염되어 앓고 말았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감록》에서야 심승지라 해서 난리통에 피난가 목숨을 건질 곳이라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온통 거미줄처럼 얽혀지고 좁혀진 사회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것인데, 어디에 도망가야 하나?! (合掌)

재미있는 역학교실 개강(10월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 7시 ~ 9시

강사 : 보현 진열(철학박사)

기간 : 12주(4주 20,000원)

불교기초교리 개강(10월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 7시 ~ 9시

강사 : 포교사 및 법사

기간 : 14주(50,000원)

즐거운 맘으로 차생활을...

한국차문화협회 수원지회장 윤영에

녹 차를 요즘은 건강차라 하여 KBS방송 생로병사에서 방영 때문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의 바람을 일으킬만 한 소재는 있지만 한번 일어 났다 가라앉는 회오리 바람이 아닌 늘 곁에서 날 시원하게 해주는 미소같은 바람으로 남아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몇자 적어 본다.

1. 차는 대화의 창구이다.

가족이라 하여 우리는 한 식탁에서 몇 명이나 눈을 마주치며 대화의 시간을 나누었는가?

늘 갖는 식사 시간은 우리네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준비하여 준다면 식사 후의 차 시간은 우리네 마음과 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한다. 그시간은 우리네 심증을 헤아려 배려할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사회가 각박해져 간다고 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먼저 권해보자.

차 한잔 하실까요? 맘을 나누고프다는 노크 소리가 아닐까?〈喫茶去!〉

2. 생활의 길잡이

예로부터 나라의 공무를 행하는 관리들이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시는 정중히 차 한잔을 마심으로 공무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결정을 지었다 한다.

명상이나 참선 전에도 깊이있는 공부로 가기에 차한잔을 권한다.

공부하시는 스님과 옛선비들은 늘 차잔과 책을 함께 하신걸로 안다. 우리 삶 또한 차 한잔으로 하루를 점검할 수 있다하면 어찌 차생활을 멀리하겠나.〈喫茶去!〉

3.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우리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외친다 한들 박물관의 박제된 물건들이 나서 주진 못한다.

차 문화속에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도구로 도자기의 우수성과 차시장의 개발, 꽃, 의상, 다식, 보자기문화, 천연염료의개발, 등 종합문화이며 행위예술이기도하다.

여러나라의 문화와 비교분석하여 차를통한 세계문화를즐기고 익히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

정신 문화의 뿌리인 茶道를 생활할 때 우리도 세계에서 훌륭한 나라가 된다.〈喫茶去!〉

4. 차한잔속에 우주가

茶禪一如, 茗禪 차수행을 하다보면 차한잔이 삶자체가 바뀌어 버린다. 선가에서 조주스님의 꼭다거 화두는 선의 진면목을 여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말 다산과 추사 그리고 다도를 중흥시킨 초의선사의 다선전의 묘한 뜻은 명선이 아닐수 없다.

혼자 마시는 차는 신의 경지라 하지 않았는가?

내속에 있는 나와 대화 해보자. 마인드컨트롤(mindcontrol) 이 필요하다면 참물로 잔만 데우는것이 아니라 세심잔을 만들어 보자. 바빠움직이는 차창의 윈도우 부러시 보다는 천천히 기다려 마음을 닦아내는 세심잔을 만나면 황홀함과 미묘한 감정, 차는 연인이요, 스승이며, 등불이다.

차한잔으로 일체 중생 견성 할지이다.〈喫茶去!〉

갑작스런 죽음에 온국민의 놀라운 하루, 만약정몽헌 회장님께 정성을 담은 차한잔을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하루가 무겁다. 목숨을 걸 만큼 힘드십니까? 차한잔 권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터득한다는 깨달음이 아닐까?

하루하루 편안히 살고 싶은 것은 소박한 우리네 삶입니다. 어느시간의 허리를 잘라 차한잔하십시오. 진향, 난향, 청향, 순향을 담아 낼수 있는 차생활을 일상화한 차 한잔은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며 해독제 입니다.

혼자 마시며 사유하고 둘이 논하고 여럿은 예를 갖추니다.〈喫茶去!〉



여보게 차한잔 하시구 가계나! 다도강좌개강

9월 2일 : 초급반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10월 2일 : 중급반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강사 : 윤영에
기간 : 5개월 과정(4주 20,000원)

불교문화해설반 10월 2일 개강

불교문화(불상, 석탑, 탱화, 범종)를 알고 나면
사찰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강사 : 권중서 포교사 기간 : 12주(4주 20,000원)



자찬훼타(自讚毀他)

“우리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과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속에서 불신하고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저 하는 것을

이루며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종교와 비례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만남과 만남의 연속이고 인연과 인연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첫출발이 어찌면 자기의 미래를 예고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갖도록 스스로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삶의 보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신념의 자기 생각의 절대 가치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주관적인 자기 생각의 결집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빈 백지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들의 계율중에서 자찬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해서 높여주고 남을 비하하거나 폄하 또는 해롭게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님들의 계율입니다. 말씀중에 여러분들이 판단 할 적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춘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말도록 하십시오. 고로 역사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관념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관 할 수 있는것이 자기 삶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의 한계를 못넘는게, 동물들 살아있는 생명체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종교의 영혼속에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믿을 적에 자기 신념이 쌓이게 되고 신념이 있음으로 해서 믿음의 진리를 배워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과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속에서 불신하고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저 하는 것을 이루며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종교와 비례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보람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흥부는 선한 사람이고 놀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부를 선한 사람의 가치관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정 반대로 가족을 고생시키는 흥부는 무능한 사람이고 놀부는 돈을 많이 벌고 가족을 호강시켜주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가지 일류가 발견한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을 발견하여 생식에서 화식을 바꾸었습니다. 주거 생활은 냉, 난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번째로 발견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퀴를 발견하면서 무중력과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몸으로만 의지해서 움직였는데 바퀴가 생김으로서 큰 물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재가불자의 생활불교

도량으로 발전하여 불교종중에

기여 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미래불교에 진정리 헌정

의 글(영) 회람 되시길 -

불기2547 8.23

한글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세번째가 컴퓨

터의 발견입니다. 인간두뇌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태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신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인간사고를 컴퓨터에 맡기고 있습니다. 문화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속에서 끌려가면서 사람의 본질이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근본역할이 종교인의 할 일입니다. 보살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자들의 생활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윤리로서 사사법(四捨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인간세상은 정말로 너와 내가 고통없이 즐겁게 제한된 삶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관문이 무어나 말을 통해서 인간 교류가 이루어지며 가장 즐겁게, 진실되게, 사랑스럽게, 그런말을 해야 또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남을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고 자기 능력을 남에게 베푸는 보시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실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종교이지 관념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말보다는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보다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리타상(自利利他相)입니다. 삼라만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도 동물도 모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정기 불교

운산스님 약력 :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총무원장(현)
• 사단법인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현)
• 한국종교협의회 이사장(현)

“본 원고는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 「백인에게 듣는다 여섯번째」 운산 큰스님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대원 공인중개사

대표 윤영무

TEL. 031)293-9700

H.P 016-755-4189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극락세계 유람기



최은화

8월의 둘째 주말.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들은 서기 503년(백제 무령왕 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전남보성군 천봉산 대원사로 산사체험을 떠났다. 호남고속도로 화순군을 지나니 드넓은 주암호가 그림처럼 나타나고 이어 목적지에 도착. 티벳 박물관과 수미산을 닮은 수미 광명탑이 일행을 반겨 주었다. 천봉산 대원사 편액 옆으로 (世界日花) 연지문을 비롯 우리 몸의 일곱 개 차크라 (에너지 센터)를 뜻하는 일곱 개의 연꽃이 줄이어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들어 웃고 있었다. 이곳 대원사에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수생식물과 삼십여종의 연꽃. 세계 각국의 108종의 수련. 해당화가 피어서 극락정토에 온 듯 독특한 향기를 주었다. 광대한 염주와 목탁이 걸린 일주문을 지나 (구품연지)에는 통돌로 조각한 구품고다리가 극락으로 가는 첫 번째로 로드(길) 연꽃 봉우리 모양 연지문을 지나! 상품화생 - 상품상생의 돌계단을 밟고 극락전에 도착하니 우측의 어린 태안영가를 안고 계신 지장보살상 주변에 빨간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아기 수자상들이 침묵으로 죄를 묻고 있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함.) 작년에 구화산에서 모셔온 김지장스님 발자국(고배경대) 참배한 후 북한음식체험(감자?옥수수) 저녁공양 후 예불시간의 주지스님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들렸다. 관정기도(바르도) 깨달음의 노래는 나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만트라였다. 좌선시간에 아미타불을 염하니 눈동자가 맑아지는 것을 觀하였다.

저녁 8시 떠도는 어린 녀들을 위한 둘째 주 수자령음악회(구품연지) 수자령을 위한 타골의 시, 시누대를 엮어 만든 펜파이프, 아름다운 선율과 곡조에 문화원 가족들의 즉석 시낭송 노래에 취해 모기향도 정겨웠다. 여름 밤 하늘엔 만월이 되어가는 둥근 달님과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본다는 수월관음상 앞에 촛불과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린 녀들의 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상의 음악회가 끝난 후 신선스님과 야밤의 빨치산 작전(경내산책) 하면서 귀한 법문은 자비하신 어머님을 모신 산신각(孟母)에서 비법을 전수. 달밤 부도탑에 강강수월래 (千江有水千江月) 뜻을 새기며 내일을 기했고, (삼보님은 깨달음의 배, 이 배타고 나도 가리라, 육바라밀 뜻을 올리고 중생함께 성불하리라, 아미타불 깨달음의 배, 이 배타고 성불하리라, 나와 함께 모든 이웃들 왕생불소원입니다. 번뇌의 몸 바치나이다. 어둔 죄업 바치나이다. 이기심을 바치나이다. 왕생발원하옵나이다.) 새벽 4시 30분, 황금범종이 고래(당목)머리를 맞고 우는 용의 울음소리라는 웅장한 종소리와 더불어 도량 석, 예불, 108배, 참선, 선체조, 연꽃감상, 율력 후, 향기로운 연꽃차 공양시간에는 수인(연꽃)도 선물 받고, 아기자기가 없어서 이연 저연 돌보느라 바쁘시다는 스님의 농담에 진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다.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배운다는 티벳 불교의 가르침을 엿보고자 티벳 박물관에 입장하니 14대 국왕이신 달마이라마 성상이 미소로 환영하였다. 과거불(가섭불) 금강살타(부도불) 녹색파라보살(소원) 참회본존(용존왕불) 수많은 불상들이 진열되어있고 업보경 마니보륜 기도바퀴 경전읽는 공덕 최초의 불경인 패엽경, 쪽물들인 금가루, 터키석, 산호석, 세가지 보석으로 쓰인 경전, 수릉쿨(갖고다니는 물감), 티벳 의약을 표시한 그림병풍 등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지하관람실에 김교각 스님전시실에는 관죽음 체험실이 이색적이었다. 꿈 수련을 알아보라는 스님의 말씀에 책을 구입하고 이 태백이 지은 김지장스님의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불문이 쓸쓸하니 집 생각을 하는구나 운해 가득한 구화산을 떠나는 동자야
난간에 기대어 집 그리워하더니 불도의 땅도 너를 잡지 못하는구나.
침병곡의 달구경도 마지막이며 자명곡의 꽃놀이도 끝이 났구나
눈물을 거두고 내려가려무나 노승은 안개와 노을을 벗하리니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이 몸 밝혀주소서.
“옴 아미 데와 슈릿 옴 아미 데와 슈릿 옴 아미 데와 슈릿”
지금도 나의 뇌리를 때리는 진언이다. 성불하세요.

경이교
통교

가족을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해 강사
권중서
H.P 011-9279-1401

중고차·신차 매매상담
21세기 자동차상사

대표 박노훈
영동자동차 매매단지 207호
H.P 011-9912-4271

校文筆房

대표 趙昌允
수원시 권선구 교동 11-31호
TEL.031)242-3212
H.P 019-240-5989

이화정 생생점술
감자탕

대표 선은숙
남문 팔달로 1가
TEL.031)244-0777



위빠사나

수원의 동생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수선화 이 종 숙 / 포교사

경기불교문화원에서 묘원님강의가 있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었다.
못 알아들어 도 그냥 계속 들어야 한다.
콩나물에 물 주면 모두 밑으로 빠진다.
그러나 콩나물은 계속 자란다.
이 법이 만나기가 힘들나 지금 만났으니 꼭 놓치지 말고
스승님 만나기 힘들나 훌륭한 스승님 만났으니
꼭 놓치지 말고 우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니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상태가 되어있어 따르면
저절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단다.
믿고 경험해 보라, 묘원님께서 반복해서 쉽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빛을 크게 바라지 말고,
마음의 번뇌(오염, 때)를 벗겨 괴로움(고통)의 소멸을 위해
수행해야만 알 수 있단다.
너는 지금 위빠사나라는 기차를 타는 것이다.
내리지 말고 계속 가면 종착역이 있을 것이다.

"마음은 가볍게 움직여 다스리기 힘든것
어느 곳이건 좋아 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한 것
잘 다스린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잘 믿고 따르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고요함 희열 평온 지혜 등의 열매를 즐길 수 있다
또 생활에서 직면하는 변화들
예를 들어 득과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등에도 훨씬 더 균형 잡히게 대처 할 것이다.
모든 기쁨 행복 할때도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행복 지나가는 흐름으로 알게된다.
수행을 해본 사람은 스스로 마음 집종의 효과를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기회를 놓치면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너의 주위에 모든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에 있는 동생 Lim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禪詩 한 구절 지은이 : 원감국사

곳을 따라 인연 따라 이 몸을 맡겼으니
어느 누구와도 멀거나 가까움이 없네
걸림 없는 구름처럼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본디부터 천지간에 한 유랑객 이라네
隨處隨緣奇此身
五峰鶴嶺孰疎親
不妨兩地雲無定
元是乾坤一旅人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위빠사나 강좌개강 (9. 2)
매주 화요일 2시 ~ 5시 / 7시 ~ 9시30분
강사 : 묘원 12주(4주 20,000원)

태극권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9월 30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강사 : 남윤현(국제우슈심판) 12주 (4주 20,000원)



사랑방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 (여성번째) 열린법회 개최

현 태고종 총무원 총무원장이신 운산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가 8월23일(토) 오후 7시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태고종 남부 종무원 10여명 스님과 문화원 가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9월 행사 안내

■ 백인에게 듣는다(일곱번째)

정락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불교와 효”
- 일시 : 불기 2547(2003) 9. 20(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약력 : 현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 사찰환경 답사 안내

9월중 사찰환경답사는 추석연휴를 보내고 고즈넉한 황금벌판에 있는 천년 고찰 제천 신흥사로 떠납니다.

- 일시 : 2547년(2003년) 9월 21일(세째주 일요일) 07:00 정시 출발
- 장소 : 제천 신흥사 (충주 미륵성지, 사자빈성지) 등 인근 문화탐방
- 동참금 : 30,000원(여행자보험, 간식, 중식 제공)
- 출발지 : 수원포교당입구 매항다리
- ※선착순으로 접수후 좌석 배정합니다. 문의 251-1083 박일청 사무국장

10월 행사 안내

■ 백인에게 듣는다(여덟번째)

현장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티벳불교와 한국불교”
- 일시 : 불기 2547(2003) 10. 18(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약력 : 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 사찰환경 답사 안내

2003년 세계도자 비엔날레와 함께

- 일시 : 2547년(2003년) 10월 5일 07:00 정시 출발
- 장소 : 광주 → 이천 → 여주(신흥사)
- 동참금 : 30,000원(입장료, 여행자보험, 간식, 중식 제공)
- 출발지 : 수원포교당입구 매항다리
- ※선착순으로 접수후 좌석 배정합니다. 문의 251-1083 박일청 사무국장



신규강좌 안내

〈생활역학강좌 개강〉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경기불교문화원생들의 요청으로 생활역학강좌를 개강합니다.

- 강좌요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7시~9시
- 개강일시 : 10월 1일(3개월 과정)
- 수 강 료 : 4주 20,000원
- 지도강사 : 보현진열(철학박사)



〈정기강좌〉

■ 기초교리강좌(주.야간반 개강 - 14주)

- 대상 : 불교를 알고 싶은분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7시
- 수강료 : 14주 50,000원

■ 불교문화교실(불상, 석탑, 탕화, 범종) 개강 10월 1일

- 대상 : 불교문화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누구나 오십시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수강료 : 12주 (4주 20,000원)

■ 청소년 영어, 중국어 강좌 개강

- 중국어 : 매주 월. 수 오후 5시 ~ 7시
- 영 어 : 매주 화. 목 오후 5시 ~ 7시
- 대 상 : 초등학생, 중등학생
- 강좌비 : 월 2만원(주2회)

요가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 목 7시 ~ 8시 30분
강사 : 김상용 / 12주 (4주 30,000원)

청소년 문화쉼터 운영

자녀를 불교문화원으로 보내보십시오.
매주 토요일 : 무료 영화 상영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수업일 10. 1 ~ 12. 27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4주 20,000원	불교의식(집전)	월	오후 2시 오후 7시	
	노래교실	반주자 진희연	20명	4주 2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화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묘원법사	20명	4주 2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화	오후 2시 오후 7시	신규
	기초교리	전문법사	40명	14주 50,000원	불교기초교리	수	오후 2시 오후 7시	14주 10월개강
	불교문화 교실	권중서	20명	4주 20,000원	불상, 석탑, 탕화, 범종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신규 (12주)
	경전강좌	묘주스님	3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기본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교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수요일 오후 7시		2004년개강 (1년과정)
문 화 강 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선	20명	4주 2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월요일 오후 2시		신규 (12주)
	요가반	김상용	20명	4주 30,000원	생활요가(주2회)	월 목	오후 7시 오후 7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4주 2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초급 중급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	5개월 과정
	태극권반	남윤현	20명	4주 20,000원	태극권, 기초품세	화요일 오후 7시		신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4주 20,000원	역학, 운세	수요일 오후 2시 / 7시		신규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4주 2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목요일 오후 2시		신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4주 20,000원	생활영어 회화	금요일 오전 10시		신규
	경락반	고철성	20명	4주 2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금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7시		신규(초급) 중급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강사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청소년 문화 쉼터반	이영옥	20명	4주 20,000원	중국어 회화	월, 수 오후 7시		초·중·고·대
		박영희	20명	4주 20,000원	영어 회화	화, 목 오후 7시		"
		홍낙기	선착순50명	무료	영화 관람	토요일 오후 2시		"

■ 회원가입안내

※본 강좌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고, 생일축전과 기념품을 드리며 문화원 자체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 쓰여지며 회원에게는 1년등을 무료로 밝혀드립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일반회원 : 월 1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회원
- 후원 및 초·중·고·대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처리하여 드립니다.